

# 계엄군 주장 받아쓰기...누구를 위한 5·18진상 조사인가

### “시민군이 장갑차에 불 지르자 방어 차원...” 자위권 발포 인정 “헬기 사격 사실 단정할 수 없다”...과거 조사보다 후퇴한 결론 5·18 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 겉핥기 조사에 곳곳 부실 투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부실한 조사 내용이 다수 수록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엄군 등 5·18 관련자 진술 채택에 치중한 탓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미흡했고 양비론적 시각으로 군·경의 왜곡·편향된 자료를 여과 없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한 발표를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등 군·경의 주장을 답습하는 등 설득력 없는 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런 사례는 진상조사위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한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계엄군 주장 받아쓰기=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군·경의 기록물이 왜곡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상조사위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통합이므로 국민갈등 유발 요인을 차단한다’는 주장을 수용해 군·경의 주장과 관련 기록물을 신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군·경의 왜곡된 주장이 그대로 실린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발표책임과 관련 윗선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자위권과 비상경계 태세 발동 여부만을 바탕으로 현장 지휘관 및 병사들의 책임만을 따지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위는 1980년 5월 19일 광주교 앞 최초 발표에 대해서는 ‘시민군이 장갑차에 불을 지르자 11공수 63대대 작전장교 차정환 대위가 방어차원에서 자체 발표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마저도 차대위가 위협사격을 하려고 도로에 총을 쏘다가 시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했는데, 이는 계엄군의

“자위권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쓴 수준이다.

5월 20일 광주역 앞 최초 집단발포와 관련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핵심 인물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김길수 3공수 16대대장을 통해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윗선으로부터 발포 지시를 들었다’는 증언을 받았으나, 이는 김 대대장이 3공수 작전참모 김종현 소령에게서 들은 전언 진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김 소령에 대해서는 ‘조사에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고만 보고서에 썼다.

강제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자행된 5월 21일 계엄군 수뇌부가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실탄을 분배했으나, 이 조치가 집단발포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 의미를 축소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매장에 대한 조사결과도 기존 5·18기념재단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통한 유전자 조사를 했을 뿐 자체 발굴한 암매장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조사보다 후퇴=진상조사위 발족 계기가 된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는 ‘헬기 사격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과거 조사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위는 조선대 절개지에서 발견된 20mm 발칸포 탄두, 전일빌딩 층 탄흔 국과수 감정 결과, 26일 항공대장의 헬기 발포 명령과 27일 비행 조

종사가 ‘사격 타깃 확인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코브라 헬기 출동 당시 탄약 1000발씩을 무장하고 3분의 1가량을 소모한 채 복귀했다는 진술 등 헬기 사격에 대한 각종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육군항공공의 지휘관 조종사 등의 직접증언이나 사격 실태에 관한 문서 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헬기에 의한 제압사격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20년 법원이 전두환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헬기 출동 당시 탄약을 3분의 1 소모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헬기사격이 실재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판시했는데도 그보다 후퇴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행불자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가족 진술 조사에 의존했는데, 조사 결과도 가족들이 과거 제출한 피해신청서 진술 내용을 반복하는 꼴이 됐다.

암매장 추정지에서 발견된 유골은 단순히 행불자와 유전자를 대조해 본 뒤 ‘관련자 없음’ 결론을 내놓고, 지속적인 추가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담았다.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유해 262구도 5·18 연관성을 확인 못해 ‘정체 불명’으로 남았다.

공군 전투기 대기설 또한 제1, 제10전투비행단 등지에서 전투기를 비상대기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시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조선대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 등 명백한 사실관계조차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마다 제기됐던 부실한 조사, 미흡한 검증 등을 조사보고서에서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재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통해 진상조사위의 불능과제를 철저히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의대로 메운 의사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 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문회 무산·부실조사 논란...아쉬움 남긴 5·18조사위 4년

### 최종 확정 보고서 오탈자도 심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활동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난맥상을 노출했다.

활동 기간 4년 동안 5·18 관련자 청문회 무산, 조사위 내홍, 부실조사 논란 등이 불거진데 이어 이번엔 공개한 조사보고서 요약문을 조사위 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해 다시 회수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9일 밤 11시께 일부 조사결과서와 조사보고서 요약문을 공개했다가 하루 만에 공지를 울리고 다시 요약문을 회수했다.

회수이유는 요약문이 ‘전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방대한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해 제공했지만 전위원회가 회수를 요구했다.

일부 내용 중 추가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있음에도 전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일부 의견만 기재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오월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진상조사위 조사결과가 이미 알려지거나 과거 조사된 내용에서 진일보한 것이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를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군 전체를 조사해 책임자를 찾아내겠다는 ‘상향식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코로나19 등의 악재가 겹쳐 조사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포함하더라도 4년간 조사성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년간의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조차 진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5·18진상규명에 대한 광주 시민의 염원이었지만 발표전 광주지역사회의 의견을 한차례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

부와 광주시민사회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결국 전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이번 보고서는 최종 확정된 보고서로 종합보고서로 나오게 됐다.

기간도 급했던 터라 용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암매장’조차 ‘아매장’으로 기록하는 등 오탈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오탈자는 최종보고서에 정정이 가능하지만 의결된 내용 중 중대한 하자라는 판단이 없을 시 이 내용은 그대로 최종 종합보고서에 실린다.

한편, 조사위는 출범초기부터 5·18 관련자 청문회를 개최하려다 뒤늦게 사과 후 취소했고, 조사위 전위원회의 조사위 집행부 불신임 등의 내용을 겪었다. 반기별로 공개한 조사활동 보고서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대, 의대 정원 45명 증원 신청

### 전남대는 결론 못내고 논의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45명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3일 조선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 45명을 늘려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교수진, 강의실 등 교육 인프라와 학생 수용능력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애초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20여명을 제시했으나 이번에 인원을 대폭

늘렸다. 조선대 의대 신입생 정원은 125명인데 정부에서 45명을 승인하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은 모두 170명으로 늘게 된다.

전남대는 이날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학내 구성원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일로 정한 4일까지는 결론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의대 신입생 정원도 조선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125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저축,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쿠폰 바로 바로 확인까지!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